

# “광주 여성사 조명...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박차”

## 광주여성가족재단 역점사업 발표 '성평등문화예술공간' 상시 운영 5·18 45주년 단행본 발간·연계전시 도보투어 등 지역행사 연계 강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올해 광주 역사의 주연이었던 여성들을 조명하는 사업과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

25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이와 연계한 전시를 비롯해 여성 항쟁을 다룬 단행본 발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주

요 문화예술 사업은 △성평등문화예술공간 운영 △구술채록을 통한 광주여성사 발간 △광주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다.

성평등문화예술공간 운영 사업의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 본관을 지역 유일의 성평등 도서관과 예술작품으로 꾸며 여성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민들이 상시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청사를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으로 옮기고 여성주의 도서, 북토크,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간대관 등을 운영해 왔다.

올해 역시 '아시아 문화도시'로 불리는 광주의 입지를 담아낸 여성 문화 콘텐츠 및 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개

최해 시민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사회적 의제와 담론을 반영한 전시 개발과 작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여성전시관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주의 예술 확장에도 나선다.

구술채록을 통한 광주여성사 사업은 광주 역사 발전에 기여해 온 여성들을 조명하고 이들이 일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공동체의 변화·발전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광주여성의 생애구술 채록집 발간, 생애구술집담회 개최, 오월여성사 단행본 발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집필될 오월여성사 단행본은 당시 여성들의 항쟁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민주화 정

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는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단행본 원고 작업에는 홍인화 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지연 5·18민주화운동기록관학예연구사,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광주여성사를 통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 광주근대여성 역사문화 도보투어, 광주여성길 문화해설사 보수과정을 진행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역사 속 사건과 공간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9월까지 '문화예술계 폭력피해 실태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창·제작 및 직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성평등 문화 조성고 예술인의 직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방안'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여성·가족정책 현황과 지역 여성들이 정주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소멸 위기 속 2030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정을 이뤄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올해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과 함께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더욱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출연자 오디션 성료

### 전국 300명 참여... 26명 선발 라 보엠·피가로의 결혼 등 공연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정기공연의 출연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올해는 오페라의 대표적 명작인 '라 보엠',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립오페라단은 각 작품에 적합한 출연자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재능 있는 성악가들을 모집했으며, 오디션을 통해 실력과 무대 적응력을 갖춘 인재 26명을 선발했다.

이번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약 300여 명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지난 18일~20일 3일간 펼쳐진 실연심사에 많은 방문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제18회 정기공연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5월 30



일~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제19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7월 25일~2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제20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사랑의 묘약' (12월 5일~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주·조역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기회도시 광주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극장에서 활약하는 성악가들과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이 함께해 광주가 만들고 세계가 감동하는 무대를 펼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아시아 문화 선도 상품 '들락'... 서울서 전시·판매

### ACC,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내달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 기간 방문객 대상 이벤트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ACC 문화상품 들락(DLAC)을 소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외 리빙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구, 건축, 인테리어, 생활 소품 등 다양한 분야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분야 전시·박람회다.

ACC재단은 이번 전시회에서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들락을 알리며 아시아 문화·예술가들과 협력해 개성과 정성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이번 전시 부스에서는 올해 새롭게 출시한 도어매트, 룸슬리퍼 등 시즌 그래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ACC 문화상품 들락(DLAC)을 소개하고 라이프스타일 상품 25종 49개 품목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ACC재단 제공

상품을 비롯해 들락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상품 25종 49개 품목을 전시·판매한다. 또 전시 기간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

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이번엔 선보이는 들락 상품은 ACC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 국립남도국악원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 내달 12일부터 6월까지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련된 공연이 올해도 찾아온다.

25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진도군의 옥주골 창작소에서 다음달 12일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총 8회 걸쳐 실시한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첫 번째 강의자로 김혜

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가 무대에 올라 '민요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도들 노래 보유자 '박동매'와 전라남도무형유산 우수영부녀농요 보유자 '이인자'가 출연해 지역의 삶이 묻어나는 민요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만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 신규전시관 대거 선보

### 미취학 어린이 전용공간 리뉴얼 내년 하반기 '자연사관' 개관

국립광주과학관은 올해 미취학 어린이 전용 전시 공간인 유아놀이터를 재단장하고, 내년까지 본관에 자연사관을 신규 구축해 다채로운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유아놀이터는 현재 전시공간을 벗어나 기존 스낵바(편의점) 및 북카페 공간을 확장해 키즈카페형 과학놀이터로 전면 교체된다.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신체활동 특성 등을 고려해 과학테마를 반영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조성하고, 영아를 위한 별도 공간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사관은 올해 전시 스토리 구성과 자연사 표본 일부를 구매하는 등 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지구의 탄생부터 지질, 생물의 진화와 함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



국립광주과학관은 올해 전용 전시 공간인 유아놀이터를 리뉴얼해 선보이고 내년까지 자연사관을 신규 구축할 방침이다. 사진은 유아놀이터의 최근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은 "작년 생활과학존 리뉴얼을 통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새롭게 선보이며 많은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며 "올해는 유아놀이터 조성고 자연사관 사전준비를 통해 그간 과학관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시콘텐츠

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해 9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명절연휴 및 5·18 등 주요 계기일 무료개관, 연간회원제 운영 등으로 공공성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찬 기자